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6 중국 난주 병령사 석굴2

불교 중흥으로 이어진 법화사상

황하 강변에서 만나는 병령사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불교의 세계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병령사 169번 굴은 중국석굴 중 최초로 조성된 내용 뿐만 아니라 중국 불교의 변천과정을 담고 있다. 병령사 169번 굴을 비롯한 병령사 석굴은 최초 조성된 420년에는 현재의 형태를 띠지는 않았다. 이 석굴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 졌는데 서진시대를 지나 북위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 이 시기 병령사 석굴에는 초기 석굴이 조성되며 만들어진 무량수불상 뿐만 아니라 <법화경> '견보'

물로 도용 스님이 이 석굴을 방문해 불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중국불교가 융성해 일어난 장안지역과 병령사 석굴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유마거사상과 문수보살상 등은 당시 <법화경>이나 <유마경> 등 구마라집에 의해 장안지역에서 진행된 역경불사의 스님 기반이 병령사 석굴에 있었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밖에 이 석굴의 이불법화상을 통해 신앙적으로는 법화사상이 지속적으로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불법화상은 이 시기 가장 많이 조성된 불상이다. 이불법화상의 다보여래는 과거에 보살로 있을 때 '내 장자 성불해 중생을 제도하고 마침내 일법하게



북위시대 이불법화상. 다보여래와 석가모니가 나란히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점경다. 시대가 흘러 중국화 된 불상의 표현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답품(見寶塔品)에 나오는 이불법화상(佛坐像): 석가모니불과 다보여래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만든 불상)과 <유마경(維摩經)> '문질품(問疾品)'의 주인공인 유마장자와 문수보살의 석상 등이 등장한다. 이외에도 약왕불상, 미륵보살상, 과거칠불상, 시방불상, 천불상, 정광불상, 명왕상 등 다채로운 불상과 인도에서 불교를 발전시킨 아육왕(아소카왕)의 인연담을 그린 벽화 등도 발견된다. 169번 굴에는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했던 법현(法顯) 스님의 이름이 등장한다. 법현 스님은 실크로드 기행문인 <법현전(法顯傳)>의 주인공이다. 이를 통해 병령사 석굴이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석굴의 불상 조성자 기록에는 도용(道融) 스님의 이름이 나온다. 도용 스님은 당시 장안에서 역경불사를 진행한 구마라집 스님 밑에서 활동한 인

되던 운 몸 그대로 사리가 돼 어떠한 부처님이든 <법화경>을 설하는 장소에 반드시 출현해 그의 설법을 증명하리라'고 서원한 부처다. 법화사상의 지속적인 유행은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무엇인가를 구현하려고 하는 중국인들의 현실적인 성격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성격은 법화사상의 유행에 이어 전체 중국불교 중흥으로 이어진다. 병령사 초기 석굴 안에도 나타나듯 단순해 부처가 되고자 발원한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바람으로 수많은 경전 및 편찬 등이 진행됐으며 이러한 것이 중국불교의 다양화로 이어진 것이다. 병령사 석굴은 중국인들의 이러한 바람이 고스란히 조영 속에 남아있어 5세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이득한 시간 여행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문무왕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51 다시 본 육조단경



"자, 여기까지 단경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대의(大義)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화에 오기 위해서 50년 만에 <육조단경> 전체를 다시 봤습니다. 본선사 스님들과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저를 공부시킨 것입니다. <육조단경>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읽으니 참 큰 뜻이구나 새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날은 본선사에서 10대 강백 초경 강설대법회가 있었다. 전 직지사 강주 의용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를 있었다. 법석 밑에 앉은 대중이 있어 선지식은 법석에 오르고, 법석에 앉은 스님은 법석 밑의 대중이 가르치고 있었다. 스님은 50년 만에 <육조단경>을 다시 읽었고, 법석 밑에 앉은 대중들은 50년 만에 '다시 읽은 육조단경'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3도 불성증인점임명종시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고 일심으로 염불하면 그 사람의 입중시에 아미타불이 성중과 함께 나타나 극락왕생하게 해준다는 내용을 판각한 작품이다. 아미타삼존불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과 백호 광명인에는 아미타불에게 인도되는 왕생자(往生者)가 그려져 있다. 이 도상은 8번째의 목판 원판 전반부의 일부와 8번째 목판의 후반부의 절반까지 이어져 있다. "사리불아, 중생 중에 이 설법을 들은 이는 저 나라(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여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그 세계에 가면 이와 같이 으뜸가는 여러 착한 사람들과 한데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니라. 사리불아, 작은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 저 세계에 가서 날 수 없느니라. 사리불아,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아미타불에 대한 법문을 듣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또는 칠일동안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워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중들과 더불어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느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에 마음이 휘둘리지 아니하여, 곧 바로 아미타불의 극락

세계에 왕생하게 되느니라. 사리불아, 여래는 이러한 공덕이 있는 것을 보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누구나 이 말을 듣는 자는 마땅히 저 국토에 가서 태어나기를 발원할지니라." (舍利弗 衆生聞者 應當發願願生彼國 所以者何 得與如是諸上善人 俱會一處 舍利弗 不可以少善 根福德因緣 得生彼國 舍利弗 若有善男子善女人 聞說阿彌陀佛 執持名號 若一日若二日若三日若四日若五日若六日若七日 一心不亂 其人 臨命終時 阿彌陀佛 與諸聖衆 現在其前 是人終時 心不顛倒 即得往生阿彌陀佛極樂國土 舍利弗 我見是利 故說此言 若有衆生 聞是說者 應當發願願生彼國土) 극락정도에 왕생하는 방법으로 염불을 권하는 장면에 아미타와 성중들이 나타나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은 먼저 그곳에 태어나고 싶다는 원을 발해야 하고, 원을 발해서 정도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염불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염불은 많은 선근을 쌓고 많은 복덕을 쌓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극락세계에 태

어나기를 발원해 보자, 그리고 염불공덕에 의지하여 입중 시에 일심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불할 수 있도록 하는 불자들이 되자. 우리 중생들은 입이 보살이라고 입만 열면 남의 이야기나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이야기로 밤낮을 지새운다. 이제는 노는 입에 염불하듯이 수행해 입중 시 아미타부처님과 성중들이 나타나 우리를 극락으로 영접해 가는 기쁨을 누리자. 그리해 사후세계가 죽음으로 단절되는 두려운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안락이 있는 극락으로 향하는 환희의 세계임을 확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자.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3도 불성증인점임명종시장엄(佛聖衆現樓臨命終時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x21.0cm.

Advertisement for Yangjikukak.com, featuring a large colorful drum and various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Text includes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oul and Incheon branches.

Advertisement for '오미자' (Eumija) organic fruit. Features a photo of red berries and text describing its health benefits and availability. Includes a price list for various quant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rower.

Advertisement for '두리안' (Durian) from Durianshop.com. Features a photo of a durian fruit and text promoting it as the best time to harvest. Includes prices for different quant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hop.